

고모리 신형 4×6반절 매엽 인쇄기 LS-32

친환경, 비숙련자 배려한 기능성

(주)고모리 코퍼레이션은 국내외에서 호평 받고 있는 LS 시리즈에 4x6반절용 매엽 오프셋 인쇄기 신형 Lithrone S 32(LS32)모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LS32는 단지 국반절 인쇄기를 사이즈업 시킨 것이 아니라 고모리 LS모델이 가진 기술을 32인치 모델 전용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조작성, 인쇄품질, 부가가치인쇄, 인쇄의 비숙련화, 친환경 콘셉트로 제작된 모델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최고인쇄속도 16,000sph, 최대종이 사이즈 820×610mm, 사전 판끼기 공정이 필요 없는 벤더리스 타입의 신형 전자동 판교환장치(Full-APC) 채용, 습식포 방식 세척장치 채용으로 세척액 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천 소비량 대폭 감소, 플랫폼 타입 클램프 채용으로 레지스터 정밀도가 향상되어 인쇄준비시간을 종래 리스론 타입의 절반으로 감소시켰다.

이 외에도 인쇄기 대부분의 조정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PQC-SIV를 채용하여 디지털 대응력도 강화되었다. 세계적인 트렌드인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성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의 절약과 비용절감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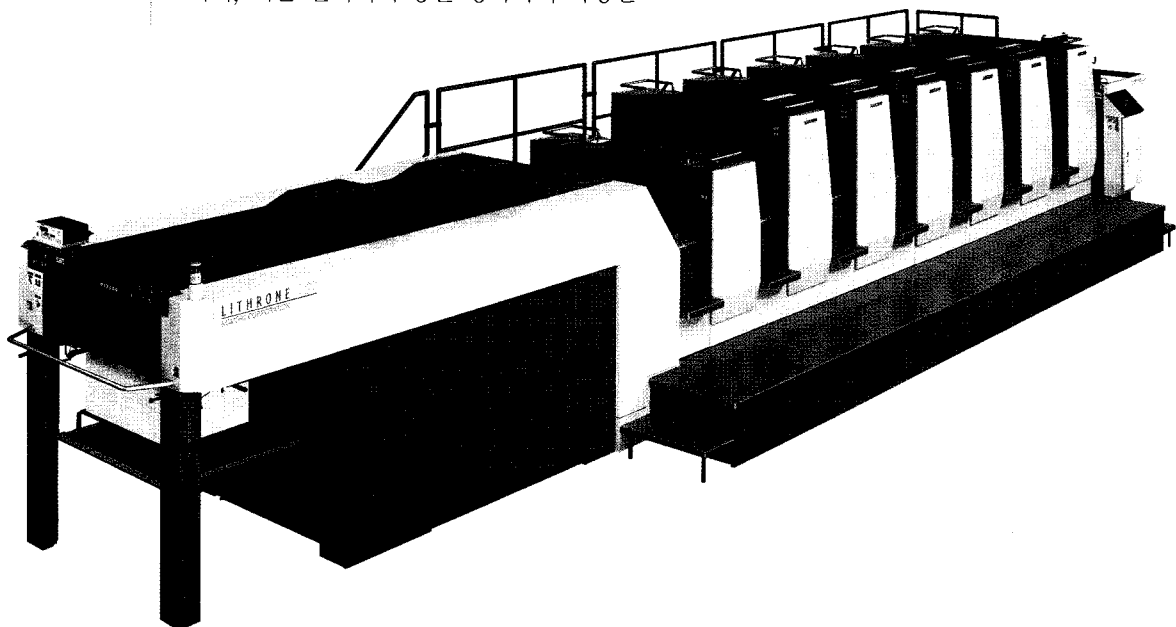
옵션으로 코터, 드라이 유닛, 인터데크 드라이어, 더블 딜리버리 등을 장착하여 다양한 고

부가가치 사양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고모리는 LS-32의 개발 배경에는 최대 820mm×610mm의 인쇄물에 대응할 수 있으며 최근 사이즈의 확대에 따라 비용 삭감에 대한 필요성이 일본 국내에서 커지는 등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LS-32는 자동제어프로세스를 갖춰 일절 낭비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동세정을 실현하고 있다. 인쇄준비시간도 종전 제품이 14분이 걸렸던 데 비해서 절반 수준인 7분으로 단축되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고모리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품 문의는 일진PMS로 하면 된다. ☎



코닥, PRINT 09서 넥스프레스 SE3600 첫선 스트림 기술로 생산성 뛰어나



코닥(Kodak)은 'PRINT 09'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새로운 사업모색과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최신 디지털 인쇄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닥은 다이렉트 메일, 마케팅 홍보인쇄물, 출판물, 포토북 등의 작업이 가능한 코닥 넥스프레스 SE3600 디지털 컬러 인쇄기를 소개한다.

새로운 SE 플랫폼이 처음으로 장착된 SE3600은 고생산성과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혁신적인 KODAK Stream 잉크젯 기술을 사용한 제품군인 코닥 프로스퍼(PROSPER)도 최초로 선보이게 된다. 처음으로 출시된 코닥 PROSPER S10 임프린팅 시스템은 고속의 인터넷 연속 디지털 잉크젯 솔루션으로 다이렉트 메일, 전단, 카탈로그, 잡지, 뉴스, 거래용 문서 작업을 웹상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기이다.

코닥 디지털마스터 EX300 디지털 시스템은 날장용 다이렉트 메일 작업 기준, 흑백 전자사진식 인쇄기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코닥은 매그너스800 플레이트세터에 오토 로더를 장착, 수동 조작 없이 최대 600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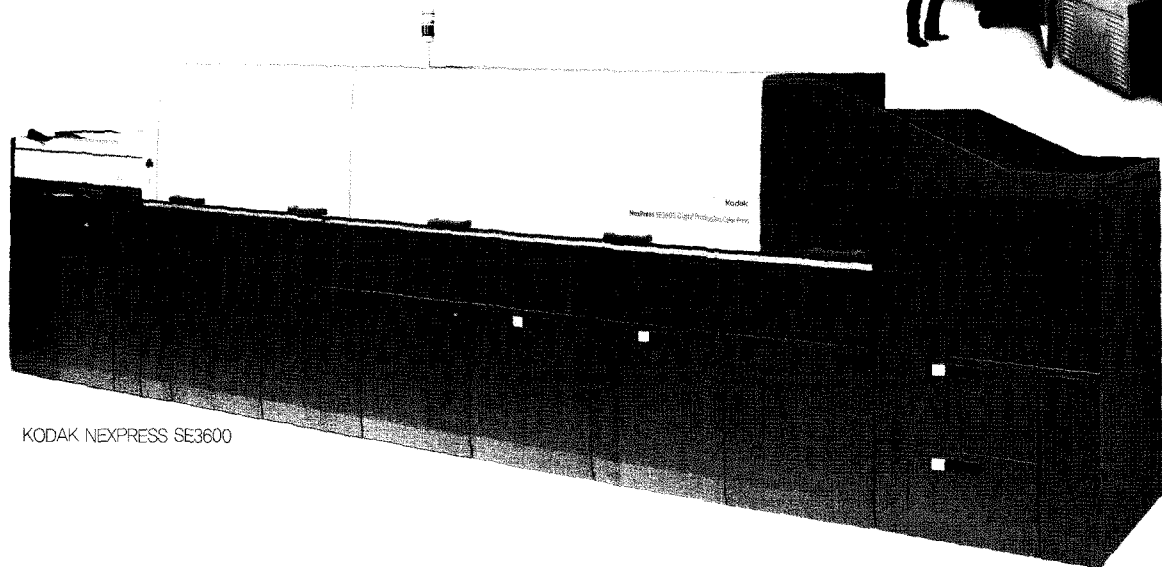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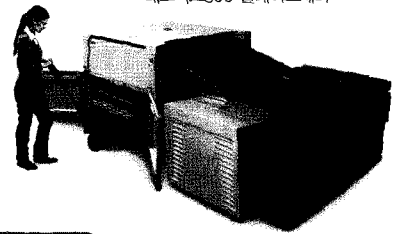
지 생산할 수 있어 완전자동화 작업으로 저비용, 고생산성을 실현시켰다. 코닥 INSITE 캠페인 매니저는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채널, 개인 URL, 이메일 마케팅, 마케팅 매트릭스와 분석 등의 마케팅 캠페인에 관련된 각 요소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준다.

코닥은 이번 전시회에서 웹 투 프린트, KODAK INSITE 프리프레스 포탈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 INSITE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 KODAK DARWIN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최초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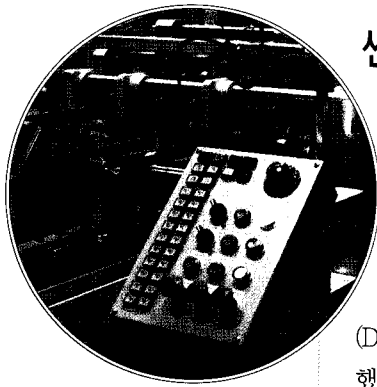
이번 프린트09전시회를 앞두고 Chris Payne 기업마케팅 이사 및 부사장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얻기 위해 지금은 자동화 효율성, 성장과 수익,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이번 전시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코닥의 다양한 장비 및 솔루션을 갖추고,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 및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홈페이지 www.kodak.com/go/print09

매그너스800 플레이트세터



KODAK NEXPRESS SE3600



썬엔지니어링, 하드롬전지 작업 가능한 자동접착기 드라곤 1300

집적교정장치 등 생산성 향상 기해

썬엔지니어링(주)(대표 곽인효)는 드라곤(DRAGON) 1300을 선보이면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신제품은 하드롬전지까지 작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된 성능을 갖고 있다.

드라곤 1300 8면 자동 접착기는 골판지 전문 접착기인 버팔로(Buffallo) 1600 과 타이거(TIGER) 2250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집적교정장치를 드라곤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적용시킨 모델이어서 최근의 추세인 마닐라와 골판지 박스를 동시에 작업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전 장비들은 마닐라용 접착기로 골판지를 작업하는데 있어서 뽀뽀어짐(fish tailing)의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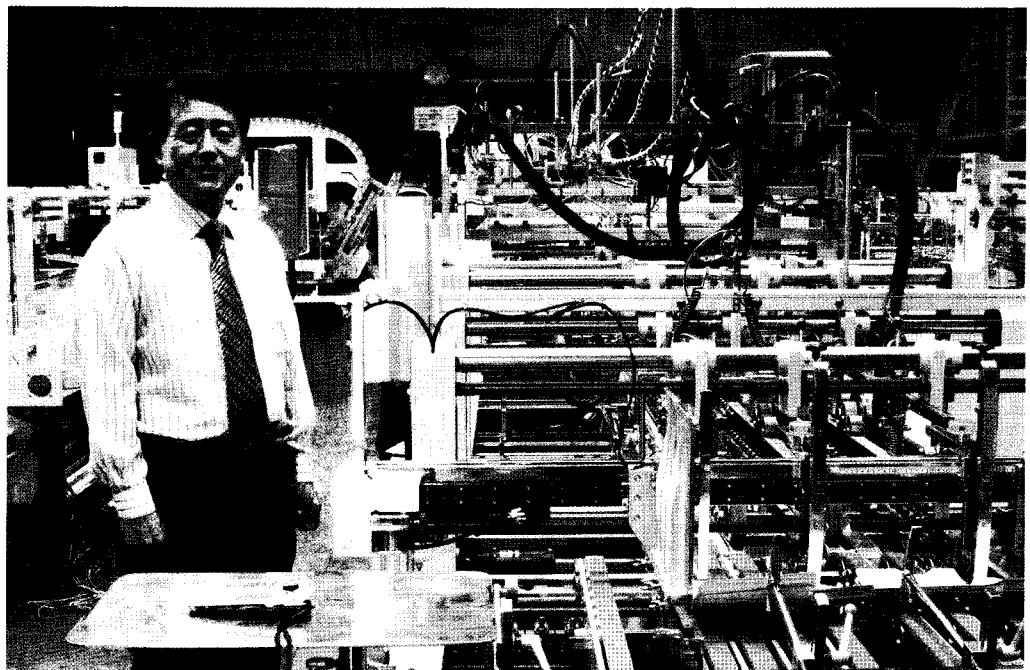
드라곤 1300은 트롬본 교정장치와 콘베어 집적교정장치(magazine collector)를 장착, 이러한 기존 골판지 작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컴퓨터 자동 세팅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한층 개선, 작업 세팅시 발생하는 오차를 줄였으며 기존 영문으로 표시되던 터치화면도 한글로 작업 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본절부의 판넬을 3장 사용할 경우(넓은 박스 세

팅 시)와 2장 사용할 경우(소형 박스 세팅 시)를 컴퓨터가 감지하여 자동으로 세팅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시키고 있으며 특히 제작된 구동 풀리(pulley)로 소음도와 마모도를 크게 감소 시켰고, 기존 작업 세팅 시 불편함을 줄인 가이드들도 새롭게 제작 되었다.

드라곤 1300은 한진피앤씨(주)에 납품되었으며 한진피앤씨의 히트 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박스와 쇼핑백을 하나로 만든 백 타입 케이스를 작업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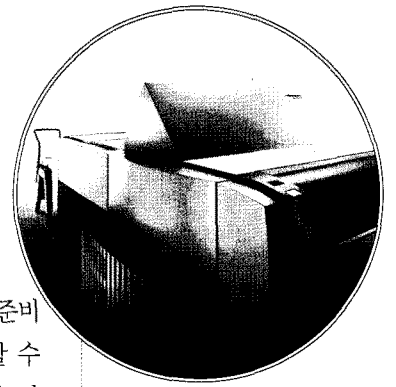
썬엔지니어링은 신제품의 개발과 함께 지난 7월 28일 부천 공장에서 열린 이번 시연회에서는 기존 3면박스와 4면 박스를 급지에서 콘베어까지 3분~5분 안에 작업자 1인이 세팅하는 모습을 직접 시연했다.

이날 곽인효 대표는 “컴퓨터로 자동 세팅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작업자가 작업 세팅시 기계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 되어서,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 창출을 함께 하는데 최선을 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



하이델베르크의 렌티큘러 워크플로

품질안정성 및 손지최소화



하이델베르크의 렌티큘러 워크플로는 편안한 작업, 짧은 작업준비 시간, 손지 절감 등으로 타사와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티큘러 이미지를 인쇄하면서 차별화를 통해 경쟁사에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고품질 렌티큘러 인쇄는 올바른 톨과 필요한 노하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쇄 준비 시 매우 작은 오차가 있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는 이에 대응하여 프리넥 인쇄사 워크플로와 CTP 수프라세터의 사용자들이 최고 품질의 렌티큘러 인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넥 스크리닝 에디터를 사용하면 모아레가 없는 렌티큘러 이미지 인쇄를 위해 렌즈에 정확한 선수를 만들 수 있으며 필름의 렌즈와 정확하게 일치, 모아레를 예방한다. 동시에 새로운 수프라세터 기능은 판출력기 해상도가 사용하는 렌티큘러 필름에 맞춰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은 이미지들이 움직이는 동안 동시에 보이는 것을 예방한다. 기능은 값비싼 렌티큘러 필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프트웨어는 시행착오 없이 완벽히 확립된 워크플로

를 만들며 이는 일관된 고품질, 짧은 작업준비 시간 및 최소의 손지로 렌티큘러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급한 변경도 가능하며 수정값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추후 작업을 위한 저장도 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CTP 제품 매니저 마크 이렌펠트(Mark Ihlenfeldt)씨는 “하이델베르크 렌티큘러 워크플로로 인쇄 회사는 매우 안정적 작업이 가능하다”며 “고객들은 힘든 테스트와 시험 가동을 할 필요 없이 프리프레스에서의 정확도가 동일한 고품질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